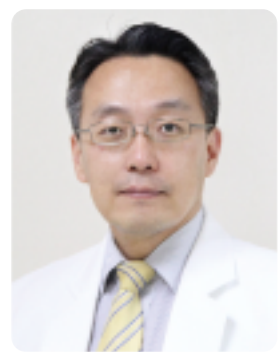


NEWS LETTER

2019년 7월 29일 Vol. 349

안지현 교수 연구논문, SCI 국제학술지 7월호 게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의 연구 논문이 최근 슬관절 및 관절경 분야 SCI 국제학술지인 ARTHROSCOPY 2019년 7월호에 등재됐다. 안 교수의 이번 논문은 미국 UC Irvine 정형외과 연구팀과 공동연구 한 결과로, ‘슬관절 굴곡 및 외부 부하에 의한 전외측 인대의 길이 및 생역학적 변화’를 연구한 것이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슬관절 스포츠 손상의 대표적 질환인 전방십자인대 손상 수술 후, 환자들의 일상생활 복귀와 스포츠 활동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교수는 2018년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번 연구와 관련해 우수연제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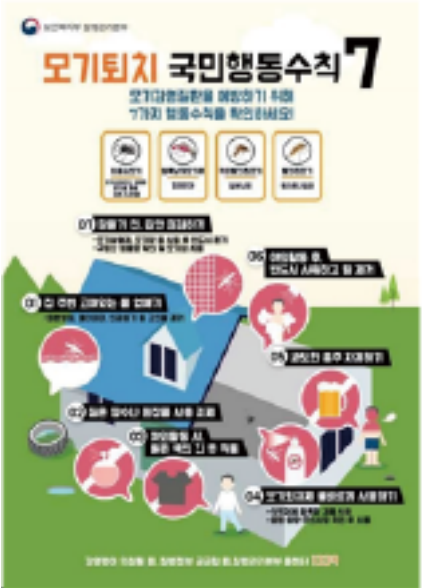
내과계중환자실 병원중환자간호사회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과계중환자실은 지난 7월 12일 ‘병원중환자간호사회 30주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이날 수상은 2018년 환자안전관리와 간호사 사직률 감소에 기여한 성과로, 다른 병원과 중환자실에 귀감을 보여 공로상을 수여 받았다. 내과계중환자실 김민선 수간호사는 수상 소감으로 “전 부서원들이 2018년 신입간호사 사직 예방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신입간호사들이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환전 안전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일본뇌염 경보’ 발령

최근 경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확인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 당부에 나섰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일부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등에서 일본뇌염이 유행하고 있어 해당국가 여행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법으로는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바지와 긴소매의 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나 옷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을 진행 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직원식당 초복 맞이 이벤트식 제공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영양팀에서는 지난 12일 초복을 맞아 직원들을 위한 특식이벤트를 마련했다. 초복을 시작하여 중복, 말복으로 이어지는 삼복에는 더위를 이겨내고, 몸보신을 위해 삼계탕을 비롯한 보양식을 즐겨 먹는 풍습이 있다. ‘삼복’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 년 중 무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여서 삼복더위라는 말이 나왔다. 또,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고 한다. 이벤트를 준비한 영양팀은 “직원식당에서 준비한 초복 이벤트를 시작으로 올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